



삶의 질과  
성기능

골반장기탈출증과  
요실금

산부인과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단순한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건강에서 성의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 골반저 질환 수술이... 삶의 질과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년 산부인과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는 국내 골반저 질환 치료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비뇨부인과학을 연수한 후 골반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삶의 질 그리고 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어로 된 골반저 질환 설문지를 타대학 연구자와 함께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주도했다. 설문지는 치료 전·후 골반저 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과 성기능을 확인하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임상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골반저 질환에 특화 및 검증된 한국형 설문지를 이용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골반장기탈출증과 요실금 수술 전·후 성기능의 변화를 보는 연구를 진행하여 복식과 골반경으로 진행된 골반장기탈출증 수술 후 삶의 질과 성기능이 호전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2018년 산부인과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유은희 교수와 함께 골반저 질환은 무엇인지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전문진료분야**  
부인과 복강경 및 로봇보조 복강경 수술,  
부인과 양성종양(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갱년기·골다공증

문의 02.440.7111



골반저 질환이란?

### 골반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65세 환자

65세 여성이 질이 빠지는 증상으로 방문을 하여 산부인과 진찰을 했다. 환자는 자궁경부가 질 입구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질전벽이 질 입구를 지나 빠져나와 있었고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에 대해 상담이 필요했다. 골반저 증상 설문지와 요역동학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하는데, 소변이 시원치 않아 소변을 자주 보면서 운동할 때 그리고 성생활을 할 때에도 소변이 샌다는 것을 확인할 때였다. 여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아니오”로 대답하면서 배우자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다. 환자는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는 여성이고 싶은데 남편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성생활 증상을 의사가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니 아마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질환

골반저 질환은 임신과 출산 등 여러 원인에 의해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느슨해져 직장, 자궁, 방광 등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질환이다. 요실금, 자궁탈출증, 방광류, 직장류, 변실금, 골반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말이 묵직하고 빠지는 것 같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시원하지 않다 △배변이 곤란하거나 개운하지 않고, 불쾌감이 든다 △손가락으로 질후벽을 눌러야 대변이 나온다 △웃거나 재채기 할 때 또는 운동 중에 소변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쪽 허리가 아프고, 골반 통증이 느껴진다 등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빠져나온 질점막이 건조해져 성관계 때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성관계 때 만족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일부 여성들은 성관계 시 소변이 짙끔 흐르는 요실금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성관계를 피하기도 한다. 말하기 꺼려지는 이러한 증상을 환자로 하여금 골반저 질환에 특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과 성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치료 후 삶의 만족도, 성기능 유지의 중요성 강조

골반저 질환의 수술적 치료는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동반 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다. 탈출된 장기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연령,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복부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복식), 질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질식), 골반경이나 로봇수술을 통해 빠지는 부위를 고정한다. 수술 목적은 골반저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해소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수술적 치료 후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건강에서 성의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나 여성의 성기능은 남성과 달리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및 개인적 요인들과 같은 다차원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실 골반저 질환의 수술적 치료 후 여성 성기능이 호전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이완되어 있는 골반저를 수술함으로써 골반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질 전후벽수술이 성교통을 가져와 성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 또한 단순히 자궁 또는 질이 빠지는 것이 교정되고 요실금이 치료된다고 해서 여성의 성기능이 호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잡 미묘한 여성 성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예, 아니오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골반저 질환 수술에 있어 환자 개인의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유은희 교수는 “골반저 질환 수술에 앞서 환자의 연령, 전신 건강 상태, 부인과 질환 유무, 여성암의 가족력, 성생활 유무에 따라 자궁보전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질식, 복식,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로 하는 수술접근방법, 질벽 봉합수술 여부도 탈출되는 장기의 위치와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환자별 맞춤형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한 수술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 재발의 위험도 없으면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성기능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